<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한 가지만 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를 못하게 된다. 항상 육과 영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

2. 기도는 신령한 영에 해당되는 것이고, 말씀은 육에 해당되는 것이다. 말씀은 육이 실천하고 행할 일이고, 기도는 영적인 조건을 세우는 일이다. 기도함으로 육이 행할 말씀을 받게 된다.

3. 어떤 일을 성사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깨닫고 해야 잘된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로 사랑해야 된다. 첫째, 영으로 존재하시는 삼위를 사랑해 드려야 되고, 둘째, 삼위가 창조하신 만물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 줌으로써 사랑해 드려야 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받고 감사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로 감사해야 된다. 첫째, 삼위께 감사해야 되고, 둘째,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며 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두 가지를 행하는 자만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니라.

6. 개발을 할 때도 토목공사와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 두 가지를 해야 온전한 개발이다.

7.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에 보낸 주를 섬기고 사랑하며 행해야 온전

한 자다.

8. 하늘의 신령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중심하여, 그 상대적 사랑의 존재자 성령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행해야 온전한 영의 삶이다.